토익커들이 시험 전,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파트별 공략 질문

- 수강생 최다 추천! 700목표 토익 RC 장진영 -

RC 어휘 문제

1. 열심히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저는 문법은 거의 다 맞추는데 단어가 너무 약해서 어휘문제만 나오면 자꾸 틀리네요. 다른 책에서 예상문제로 나오는 모르는 단어를 다 외워야 하나요? 아니면 토익 기출 단어를 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파고다스타 토익 장진영입니다. 어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겠네요. 다른 책에서 예상문제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책인지 모르는 저는 과감히 패스하라 하고 싶네요. 우선! 제가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 정리해놓은 단어부터 외우면 좋겠습니다. 파고 다스타 회원으로 처음 가입할 때 제공해드리는 핵심 기출 단어장부터 추천해 드릴께요. 제가 하나 하나 기출문제 체크해가며, 중요한 단어만 뽑아 만든 자료인데 거기 있는 단어와 그 단어가 포함된 예문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공부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시제 문제 접근 방법

2. 저는 맨날 틀리는 부분이 파트 5,6의 시제문제입니다. 앞뒤를 보고 과거인지, 미래인지 판단한 다는데, 제가 해석을 못하는 건지 시제문제는 맨날 틀립니다. ㅠ ㅠ 안 틀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파고다스타 토익 장진영입니다. 시제 자체가 어려운 단원 입니다만, 강의시간에 다루었듯이 토익에 출제되는 시제는 제한적이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 파트 5 시제 문제: 특정한 시제의 단서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단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과거 [~ago/last~] / 현재[currently/usually/normally...] / 미래[next~] / 현재완료 [for(over,in) the past(last) 기간 / since+ 과거시점/ recently=lately] 2) before 나 after 가 접속사로 제시되었을 때 동사를 물어보면 시제 일치
- 파트 6 시제 문제: 철저하게 앞뒤를 해석하여 문맥에 따라 시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900점 목표 공부법

3.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해도 점수가 800점에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회 차로 치면 20회 정도 되는 분량의 실전 문제집 2권도 풀어보았는데도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여태까지 풀어본 문제를 오답노트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집을 사서 새롭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900점 꼭 넘겨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파고다스타 토익 장진영입니다.

800점에서 900점을 넘는 건, 400점이 700점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요. 900점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세트 이상 공부하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보통의 실전반 강의(문제풀이 위주의)를 보면 한달에 다루는 문제 수가 4,000개이니 40세트 한달 분량이 나옵니다.

그 정도를 다루지 않고 900점을 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오답노트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답노트란 말에서 보듯이 오 답인 이유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정답과 정답에 대한 설명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틀린 이유에 대해 정리하고 그 뒤에 정답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오답노트 작성의 핵심이라는 점 꼭 명심해주세요. 한번 틀리게 생각했 던 건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생각의 고 리를 확실히 끊을 수 있도록 자기가 틀리게 생각한 이유 이것을 꼭 정리하셔야 합니 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900점을 받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하세요.

파트 5 어휘 문제

4. 파트 5에서 6개 정도 틀리는 학생입니다. 문법에서 조금, 어휘에서 매번 틀리게 됩니다. 아무리 외우고 외워도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휘를 어떻게 정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파고다스타 토익 장진영입니다. 파트 5에서 한 두개씩 틀리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은 어휘 문제를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득점을 원한다면 어휘를 공부할 때 반드시 구 형태로 암기해야 합니다.

예컨대, relatively 를 외울 때 "상대적으로" 라고 암기하면 실제 시험에는 전혀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a relatively small/new company 이런 식으로 암기하여 relatively가 small / new와 짝을 이룬다고 공부해야 만이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단어를 정리해서 암기할 때는 구 형태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해서 공부하신다면 파트 5 어휘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7 접근 순서

5. 파트 7 풀 때 원래 순서대로 푸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먼저 풀고,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고다스타 토익 장진영입니다.

파트 7을 풀 때 지문부터 읽고 문제를 보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완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제부터 읽고, 그 문제 속의 키워드를 체크한 후 본문을 읽을 때 그 키워드가 있는 부분을 찾은 후에 그 부분을 천천히 집중해서 읽는 방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파트 7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키워드는 고유명사 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건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름이 패러프레이징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파트 7 문제의 순서가 지문에 나오는 단서의 순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181-185번의 문제라면 181번 문제의 단서는 지문의 앞쪽 부분 185번은 지문의 뒷 쪽 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점을 이용한다면 보다 빠른 파트 7 풀이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별 문제풀이 순서

6.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모자라면 파트 7에서 많이 틀리게 되니깐 파트 $7 \to 5 \to 6$ 순으로 접근해 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차례대로 푸는데, 원래 제 스타일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요? 시간은 거의 맞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고다스타 토익 장진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좋다더라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본인이 잘하는 부분 즉,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빠르게 풀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나중에 푸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독해에 자신 있는 학생은 파트 7부터 푸는 게 좋고 문법이 자신 있는 학생은 파트 5부터 푸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힘들어 하는 부분부터 먼저 풀 경우 그 부분에서 정답을 많이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혹시라도 시간을 많이 쓰게 되여 본인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못 푸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점수가 850점 이상이라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이때는 모르는 부분 즉 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부터 풀어야 합니다. 현재 점수가 850이상이라 함은 만점까지 노린다는 건데 이때는 어려운 부분을 맞춰야 만이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절대 포기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PAGODA ST 파고다 1등 강사가 만든 최고강의!